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kkb@yahoo.co.kr, 614-961-0980)
 총회장: 이봉모 바오로 (614-766-1990) 부회장: 최영자 레지나 (614-855-2167)

본당 소식

- ◆ 6월은 **예수성심 성월**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닦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인지 되돌아보는 복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6월 9일 콜럼버스 교구 2008년 **재정 세미나**에 신부님과 총무가 참석하였습니다.
 * 새로 개정된 교구 재정 방침과 지침이 콜럼버스 교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니 관심이 있는 교우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olsdioc.org/Offices/FinanceOffice/FinancialPolicyManual>)
- ◆ 다음 주일 미사 후 **사목평의회**가 있습니다.
- ◆ **성모회 모임**
 - 일시: 6월 18일 오전 10시
 - 장소: 김영옥 막달레나 자매님 댁 (614)430-9446
- ◆ **이호영 구역모임**
 - 일시: 6월 21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Highbanks Park

- ◆ **천교 준비 봉사자**
 - 6월 15일: 김성애
 - 6월 22일: 서인원
- ◆ **6월 천교 후 봉사:** 정하상 구역
-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신청하실 부모님께서 최규선 루치아노 형제님(614-302-3708)에게 문의하십시오.
- ◆ 매월 셋째 주 미사 후 **병자 봉성체**가 있습니다.
- ◆ **2008년 BAA (Bishop's Annual Appeal)** 모금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6,427이며 5월말까지 모금액은 \$2,920입니다.
 -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the Diocese of Columbus

기도하고 일하라

연중 제11주일 June 15, 2008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리스도>

렘브란트 (1609-1669), 동판화,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네덜란드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459.00
교 무 금	\$560.00
감 사 헌 금	\$200.00

- 교 무 금: 김한식 이경환 신현태
- 감사헌금: 한석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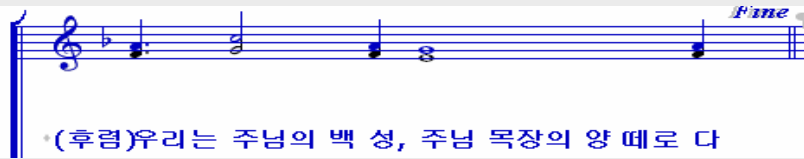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파견하셨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탈출기 19,2-6ㄱ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화답송



제 2 독서 로마서 5,6-11

“우리가 아드님의 죽음으로 화해하게 되었다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9,36-10,8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파견하셨다.”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1,445단 12명
이호영	단 명	8,538단 74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6,495단 68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학생 구역	단 명	10단 2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단 명	2/22/04-6/8/08 (224주)

☞ 총누계: 197,538단 12,674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6월 15일	6월 22일
해설자	곽광주	고상식
독서/봉헌	이호영 구역	황석두 구역
보편지향 기도	평화의 모후	상지의 옥좌

오늘의 성가

♫ 입당: 441 ♪ 봉헌: 511
♫ 성체: 183 159 ♪ 파견: 461

물과 같이 흐르는 사랑

변종찬 마태오 신부, 서울대교구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마태 9,36). 예수님의 이 마음은 복음의 핵심이며 구원사업의 원천이고 “하느님의 크신 자비”(루카 1,78)와 “하느님의 인간애”(티토 3,4)를 드러내는 감정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은 12 제자를 선택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뀝니다.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부족이 12개였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우고 새 계약을 맺고자 하시는 당신의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탈출 19,5)라고 하신 제 1 독서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통해 우리가 하느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 목장의 양 떼로다”라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올렸듯이,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을 자랑하는 새 이스라엘 역시 “주님께서 하느님이심을.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로다”(시편 100,3)라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느님께서 요구하신 것처럼,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 출신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즉 가지와 나무의 관계처럼 예수님께만 붙어 있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에 순명해야 합니다. 이 두 차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12 제자들의 새로운 신원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이라 불리며, 주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포해야 하고 그분이 하신 것과 동일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 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게 하십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요, 병자와 허약한 이들에 대한 치유는 이 세상 삶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합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의 이 권한은 사랑의 권한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이미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로마 5,8). 따라서 사랑의 권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이기에 타인들에게 거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물과 같아서 흘러가야만 하지, 내 안에서 고이게 되면 썩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사명이 성직자나 수도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사명에 초대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것의 시작은 타인에 대해 특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요, 그 마음은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 스스로가 수확할 밭의 일꾼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말과 행위로 증거해야 합니다.